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심방 가는길

세상사람 보이는 것 찾아 나서나
전도자는 갈한 영혼 찾아 나서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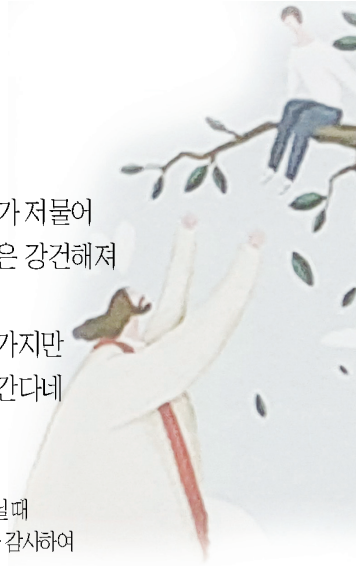
어느새 돌고 오면 하루 해가 저물어
걸 사람 열어지고 속 사람은 강건해져

상처 받은 영혼 있나? 낙심하는 영혼 있나?
말씀 잡고 잘 자라나? 기도하며 승리 하나?

세상 사람 자신 위해 살아가지만
전도자는 주를 위해 살아간다네

성령인도 따르는 길 생명 씨앗 뿌리는 길
한걸음에 기도하고 두 걸음에 찬양하며

전도사님과 구역식구들 심방을 다닐때
영혼돌아보는 그 귀한일이 너무나 감사하여
충만한 마음을 글로 남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자유민주주의 거부하는 위법”

시민단체들, 정의당사 앞 반대 집회

바른교회세움연합, 레인보우리턴즈, 다음세대학부모연합 등이 최근 국회의사당역 인근 정의당사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 바른교회세움연합의 최영익 목사, FINET 미니스트리의 김영현 전도사, 다음세대학부모연합이 조우경 대표, 카이스트 트루스포럼의 김규열 청년, 탈트랜스젠더인 엄준모 청년,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의 박성제 변호사, 레인보우리턴즈의 염안섭 원장, 김원평 동반연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의당 정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른바 ‘평등기본법’은 2011년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가 이미 철회되었던 차별금지법안과 거의 모든 항목이 유사하다”며 “이는 발의 의원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이 불평등한 ‘평등법’의 내용에는 크게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강력한 법적 제재 수단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매우 비이성적인 ‘평등법’이라고 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은 첫째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준다. 젠더, 동성애, 페미니즘 등을 앞장서서 조정해왔던 인권위의 ‘시정명령’을 교회와 학교 등의 공동체에 ‘최고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하여 사용자가 피산에 이를 수 있게 하는 강력한 악법”이라며 “헌법기관도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에 강력한 권위를 부여하여 ‘심권분립’의 헌법정신

에도 어긋나는 본질적 문제가 더 큰 반(反)국가적 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둘째로, 차별금지법은 교회 안에서 동성애와 다지성에, 수간 등의 변태적 성욕을 행하는 자에게 ‘교단의 한법’과 ‘교리’에 따라 처리할 경우 ‘성적지향, 성적정체성에 따른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형사 처벌 적용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며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신학교에서 동성애자 목사를 자연스럽고 보게 되는 일은 시간 문제일 뿐더러, 현대교육의 시작이요 기반이 된, 기독교 건학이념의 역사적 명분 학교는 모두 정체성을 잃을 것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추진하는 주요 인물들이 모두 반(反) 기독교적 사상을 가진 것과 동성애를 옹호하는 정황으로도 정상적인 국민은 그 목적을 쉽게 분별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셋째로, 차별금지법은 일반적 사회에서도 평등과 자유, 인권이라는 단어로 위장하여 국민에게 ‘불평등한 처벌’을 가하는 악법”이라며 “차별금지법의 실상은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권리를 국민으로부터 빼앗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을 들어, 예외적으로 최고 5배까지 배상 범위를 확장했다.

당연히 모든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엄청나게 위축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들은 “결의문”을 발표하며 “헌법의 기본가치는 자유민주주의”라며 “정의당이 내세우는 평등의 가치, 곧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의 기본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근본적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

- 결 의 -
헌법의 기본가치는 자유민주주의이다. 정의당이 내세우는 평등의 가치, 곧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의 기본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근본적 위법이다.

종교개혁자이자, 존경받는 네덜란드의 정치가 아브라함 키이퍼는 이렇게 말한다.

“내 생애를 지배하는 단 한가지 소원이 있다. ‘가정’과 ‘학교’와 ‘국가’에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들을 다시 확립하는 것이다. 성경과 피조물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국민의 양심에 새겨 넣어서, 온 국민이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에 필요한 정신이다. 정확하고 건강한 가르침들을 교회에서 자유롭게 가르치며 건강하게 세워지는 대한민국을 보기를 소망한다.

모든 국민과 한국 교회와 우리 청년들은 ‘선대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보수하는 것임을 선포한다. 그러므로 국민들과 한국교회는 국가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에 ‘차별금지법안 발의’에 맞서 헌법이 보장하는 참 자유와 참 인권을 수호하는 의로운 행위를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바른 가치를 훼손하는 정의당과 이에 동참한 국회의원들은 진정한 평등과,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정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사설

북한이 핵을 버려야 한다

진정한 평화를 말하려면 북한이 핵을 버려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북한이 평화를 가로막기 때문이다. 북한이 존재하는 한 평화는 없다. 희망과 절망이 뒤섞여 있다. 장수는 현실은 외면하고 니콜라 평화를 외친다. 평화라는 키워드를 내세우면 모든 게 일사천류다. 군부정부가 임박했게 평화만 내세우는 ‘장수군인’들이 득세하고 있다. 그들수록 군기강은 해이해져가고 있다. 6·25 전쟁의 참전 경험을 저술한 페렌바크 미군 중령은 저서 ‘비탄 전쟁 (The Kind of War, 1983)’에서 “강이없는 군대는 패배할 운명”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는 불과 66년 전 월남의 패망에서 이를 똑똑히 보았다. 안보와 민족화합 이 두 명제는 통일을 위해 한국이 견지해야 가치이다. 진정한 민족화합을 이룰 통일을 위해 먼저 안보를 튼튼히 해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분단의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생각은 다른 것 같다. 대통령은 6·25전쟁 70주년 기념사에서 북의 비핵화는 한 번도 말하지 않고 종전선언을 촉구했다.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홍수가 나면 당장 물에 휩쓸려 갈 뿐이다. 즉 종전선언으로 전쟁을 막을 수는 없다. 인식 차이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남동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도 대포로 폭파 안 한 게 얼마나 다행인가. 대동강 매주와 우리 쌀을 버려 먹지도, 폭파될기도 가지기 전에.

1980년대 운동권의 민족해방론(민해론)은 분단이 독재와 불평등 등 모든 문제의 근원인이라는 인식이다. 그들이 지금 집권세력의 주축으로 자리 잡았고, 안보와 남북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민족을 강조한다. 북한이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변호해 주고 비난을 덜어 주려다 팩트에도 서슴지 않는다. 4세기 로마의 군사전문가인 베게티우스는 지금과도 군사학의 기초가 되고 있는 군사학논고에서 ‘평화를 원하는 자는 전쟁에 대비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지금 한국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반일(反日)이라는 즉각 휘두르기에 이어 수도(首都) 천도(遷都)라는 국면전환을 꾀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안보와 국방을 다지는 것이다. 전쟁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다. 한미동맹을 보다 철저히 다지고, 우리의 무기체제와 군기강을 비롯해 모든 경우의 수를 포함한 국가의 생존과 영속 전략을 어서 속히 구체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모압과 암몬의 자손들이 여호사벳을 침략했을 때 여호사벳은 즉시 하나님께 간구하고 온 유디의 백성과 함께 금식기도 했다. 국가에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속한 것이니라” (대하 20:1-19)라고 하시며 두려워하지 말고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을 진정 신뢰하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합입할 수 있다.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나

최근 민간단체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대북 전단에 대하여 북한의 항의가 들어온 것을 기회(尙書)로, 우리 정부와 대북 전단을 보내는 행위가 이뤄지는 지역의 지자체는 이런 행위에 대하여 눈에 불을 켜고 단속하고 있다. 또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도 정부와 지자체는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옹색한 여러 가지 법안을 들이대고 있다. 즉 남북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공유수면법,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그 동안은 왜 이런 법에 의한 규제를 하지 않고 있었는가?

그런 가운데 북한 지역에 지난 2005년부터 성경과 신앙에 관계된 자료를 보내는 선교단체까지 강한 제재를 가하고 있어, 그 대응이 지나친 방향으로 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4월 ‘순교자의 소리’ 선교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성경을 보내다가 강원도 철원에서

경찰에 적발되었다. 북한의 지하교회와 공산권에 있는 숲은 기독교 성도들에게 성경을 보내는 것이 간첩행위란 말인가? 오히려 ‘주적’ (主敵)을 주적이라 말하지 못하고, 주적의 말에 끄떡 못하고 놓아주는 것이 더 이상한 나라가 아닌가? 여기는 자유와 인권이 유린당하는 북한이 아니라,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된 대한민국이다. 정부의 원칙 없는 갑작스런 규제가 국민들은 당혹스럽다. 오히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경찰의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이게 평양인지 서울인지 헷갈린다”고 울부짖었을까? 대한민국에서 보장하는 ‘종교·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며, 북한 주민들의 자유도 신장시켜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묻고 싶다.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면서까지 지키려는 ‘더러운 평화’를 역사와 후대(後代)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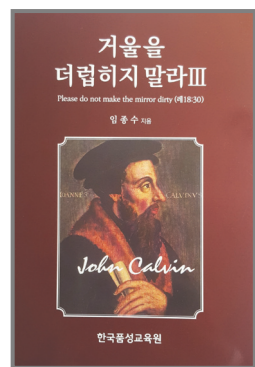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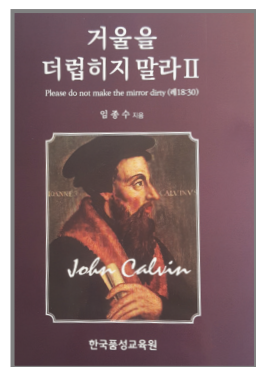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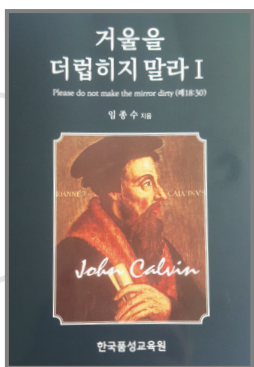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 고문 : 정채위원장 조몽목 목사
-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 인쇄인 : 배성환
-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하고 품성은 행복과 성공으로 인도한다



품성은 성공과 행복의 열쇠이다. 품성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이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영적인 면만 강조하고 육체를 가진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여 삶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야 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남의 발에 고추를 따가는 생활이 그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그래서 저자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영적훈련을 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품성에 관한 책자를 7권 출판하였다. 최근에 출판된 ‘거울을 더럽히지 말라’ 1,2,3권을 소개한다.

강의 안내

각 교회에서 시행되는 각종 중직자 세미나
각 지역에 거주하는 목회자들의 소 그룹

책 구입처

cslim4305@gmail.com 임종수 원장
재무담당 이미란 이사 010-8618-9982
계좌번호 농협 351-0771-1742-13
한국 품성교육원

“ 제1권 품성과 비슷한 덕목인 성격, 덕성, 인격, 개성을 바꿀 수 있는 어떻게 개발하였는가? 이조 500년 유교와 고려 500년 불교가 만들어낸 윤리 도덕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윤리부문 7가지와 자기 계발의 부문에 필요한 10가지를 논하였다.

“ 제2권 대인관계 부문 10가지와 신사적인 성도가 되기 위한 품성 4가지와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품성과 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품성이 무엇인가를 논하였다.

“ 제3권 부정적인 품성 6가지와 영적전쟁의 품성 10가지와 신자가 물리쳐야 할 세력들 즉 점과 굶, 자살, 인종차별과 이단척결을 논하였고, 올바른 생활을 위한 실천분야 5가지를 논하였다. 만약 이 책을 매일 한 과씩 훈련한다면 훌륭한 신자가 될 것이다. 곧 새 언약과 품성과 자유의 대 헌장 두 권이 출판 될 것이다.